

◆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 (5급)

1. 다음 한자의 독음을 쓰시오.

- (1) 觀客 (2) 初期 (3) 充分 (4) 再唱
- (5) 勇兵 (6) 漁具 (7) 原始 (8) 罪惡
- (9) 知識 (10) 倍加 (11) 品貴 (12) 任用
- (13) 終止 (14) 性能 (15) 實效 (16) 幸運
- (17) 成功 (18) 寒氣 (19) 商業 (20) 展望

2. 다음 한자의訓과 音을 쓰시오.

- (1) 壇 (2) 固 (3) 讀 (4) 活
- (5) 談 (6) 以 (7) 世 (8) 雲
- (9) 基 (10) 爭 (11) 落 (12) 賞
- (13) 完 (14) 畫 (15) 賣 (16) 件
- (17) 性 (18) 在 (19) 商 (20) 歲

3. 다음 글 가운데 괄호 친 한자어를 한자로 쓰시오.

- (1) 그 영화는 참 (감동)적이었다.
- (2)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 (3) 동쪽과 서쪽을 (동서)라고 합니다.
- (4) 겨울을 날 (생물)들은 벌써부터 겨울살이 준비를 합니다.
- (5)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 다음 訓과 音을 지닌 한자를 쓰시오.

- (1) 눈 설 (2) 사라질 소
- (3) 향할 향 (4) 웃 북
- (5) 맑을 청

5. 다음 한자의 반대 또는 상대되는 한자를 쓰시오.

- (1) 內 ↔ ( ) (2) 手 ↔ ( )
- (3) ( ) ↔ 夏 (4) ( ) ↔ 書

6. 다음 한자어와 뜻이 비슷한 한자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 (1) 法 - ( ) : ① 改 ② 板 ③ 良 ④ 規
- (2) 英 - ( ) : ① 直 ② 特 ③ 地 ④ 終
- (3) 教 - ( ) : ① 交 ② 思 ③ 放 ④ 訓

7. 다음 빈 칸에 들어갈 한자를 적어 사자성어를 완성하시오.

- (1) 正( )例 : ① 信 ② 神 ③ 比 ④ 飛
- (2) ( )光石火 : ① 心 ② 電 ③ 全 ④ 空
- (3) 門( )成市 : ① 戰 ② 展 ③ 前 ④ 田

8. 다음에서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한자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 (1) 團 : ① 落 ② 郎 ③ 壇 ④ 談
- (2) 效 : ① 科 ② 板 ③ 孝 ④ 救
- (3) 切 : ① 節 ② 順 ③ 線 ④ 實

9. 다음 한자어의 뜻을 고유어(순수 우리말)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 (1) 敬老 - ( )을 공경함(조건:2음절)
- (2) 名醫 - 병을 잘 고치는 ( ) (조건:2음절)
- (3) 民心 - 백성의 ( ) (조건:2음절)

10. 다음 한자의 약자를 쓰시오.

- (1) 國 (2) 禮 (3) 圖

한자 만화 코너/한통이의 어린이 한자교실(열아홉번째 마당)

달걀 한 무레미



■ 재미있는 한자성어 ■

도불습유(道不拾遺)

(길 도, 아니 불, 주물 습, 떨어질 유)

직역 :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줍지 않는다.

의역 : ① 법이 잘 지켜져 나라가 태평하고 평화로움. ② 형벌이 엄해서 백성들이 법을 어기지 않음.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보고 내 물건이 아니라고 주워 가지 않는 세상이 있다면 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데 다음 두 일화를 보면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 이유가 좀 다르다.

일화 하나.

각 국이 목숨 건 전쟁으로 나라를 지켜야 했던 춘추시대, 노(魯)나라에 56세가 된 공자는 대사구(大司寇: 지금의 법무장관)가 되어 법을 집행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덕화 정책이 노나라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쳐 물건을 사도 팔 때 속이는 행위가 없어지고, 남녀 간에 음란한 일이 사라졌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아(道不拾遺) 외국 여행자가 노나라에 이르러면 관가에 가지 않고도 잃은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仁)의 사상을 주창한 공자가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지 3개월 만에 도불습유(道不拾遺)의 시대를 열었다.

다음 두 번째 주인공은 공자와 무엇이 다른가 보자.

일화 둘.

전국시대의 칠웅(七雄) 중에서 진(秦)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쳐 가장 낙후된 나라였다. 진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위나라에 귀족출신인 상앙(B.C.390~B.C.338)이 진효공을 만나서 자신의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을 주장하여 신임을 얻게 되었다. 상앙은 오후(五戶), 십호(十戶)마다 연대 책임을 묻는 제도(連坐制)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법률을 제정해 놓고 즉시 공포하지

는 못했다. 백성들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아 상앙은 남문에 길이 3장(三丈: 약 9m)에 이르는 나무를 세워 놓고 이렇게 써 붙였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십금(十金)을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려 하는 사람이 없어 오십금(五十金)을 주겠다고 써 붙이자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 상앙은 즉시 약속대로 오십금을 준 뒤 법령을 공포하였다.

일년 뒤 백성들이 법이 너무 엄격해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던 차에 태자가 그만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태자의 스승인 공자건(公子虔)을 처형하고 공손가(公孫賈)는 묵형(墨刑)으로 다스렸다.

법 앞에는 귀족도 서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백성들이 그제서야 법을 잘 지키게 되었다. 10년이 지나자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 산에 도적이 없으며, 전쟁이 나면 모두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효공이 죽고 태자가 혜문왕으로 즉위하자 상황이 급변하였다. 태자 대신 형을 받고 죽은 공자건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앙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그래서 국외로 도망을 치려 하였으나 여행권 없는 자의 유숙을 금지한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하였다. 결국 불참한 상앙은 거열형(車裂刑: 죄인의 사지를 수레에 묶어서 찢어버리는 형벌)에 처해져 52년의 생을 마감했다.

공자가 만든 도불습유(道不拾遺)는 덕으로 다스린 결과 법에 문을 닫지 않고도 편히 잠자는 무릉도원의 이상적인 사회 모습이라면 상앙이 만든 도불습유(道不拾遺)는 눈만 돌리면 법망에 걸려드는 법 제일주의인 사회 모습이다.

공자가 다스리는 세상과 상앙이 다스리는 세상은 분명 차이가 있다.

★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

성균관(成均館)이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 한국 최고의 학부 기관으로서 '성균'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충렬왕 때인 1289년에 그때까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의 명칭을 '성균'이라는 말로 개칭하면서부터이다.

충숙왕때인 1308년에 성균관으로 개칭되었고, 공민왕때에는 국자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62년에 다시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조선 건국 이후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속되어, 95년부터 새로운 도읍인 한양의 송교방(崇教坊) 지역에 대성전(大聖殿)과 동무(東)·서무(西)·명륜당(明倫堂)·동재(東齋)·서재(西齋)·양현고(養賢庫) 및 도서관인 존경각(尊敬閣) 등의 건물이 완성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성균관은 태학(太學)으로도 불리었으며, 중국 주나라 때 제후의 도읍에 설치한 학교의 명칭인 '반궁(泮宮)'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성균관에는 최고의 책임자로 정3품직인 대사성

(大司成)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제주(祭酒)·약정(藥正)·직강(直講)·박사(博士)·학정(學正)·학록(學錄)·학유(學諭) 등의 관직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초시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儒生)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의 입학 기회를 주었다.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개국 초에는 150명이었으나, 1429년(세종 11)부터 200명으로 정착되었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은 상재생(上齋生)이라 하였으며, 소정의 선발 시험인 승보(升補)나 응시(應試)에 의해 입학한 유생들을 하재생(下齋生)이라 하였다.

성균관 유생은 기숙사적인 풍채와 서재에서 생활하였으며, 출석 점수 원점(圓點)을 300점 이상 취득해야만이 대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유생의 생활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자치적인 활동기구로 재회(齋會)가 있었다. 유생은 기숙사생활을 하는 동안 국가로부터 학전(學田)과 외거노비(外庫奴婢) 등을 제공받았으며, 교육 경비로 쓰이는 전곡(錢穀)의 출납은 양현고에서 담당하였다.

유생은 또한 당대의 학문·정치현실에도 매우

민감하여 문묘종사(文廟宗祀)나 정부의 불교승상 움직임에 대해 집단 상소를 올렸으며,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당(觀堂)수업거부 또는 공관(空館)이라는 실력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 학문의 전당으로서 관리의 모집단으로 주요한 기능을 한 성균관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교육재정이 궁핍화하고 과거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1894년의 갑오개혁은 성균관의 역사에서 중요한 굴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근대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일정한 변모를 겪게 되었다.

성균관은 개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유학과 도덕을 지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1946년 성균관대학의 설립으로 그 전통은 계승되었다.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태학지(太學志)'에는 성균관의 건물 배치도 및 성균관 제도의 변천 과정, 유생의 활동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성균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 )에 들어갈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보기>

- ① 出 ② 頭 ③ 暗 ④ 當

가. 그 일은 (암)암리에 소문이 났다.  
나. (당)장 뛰어가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해라.  
다. 그 토기는 경주에서 (출)토되었다.  
라.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었다.

◆한자 시험 대비 빈출 문제(5급)정답◆

- 1. (1) 관객 (2) 초기 (3) 충분 (4) 재창 (5) 용병 (6) 어구 (7) 원시 (8) 좌악 (9) 지식 (10) 배가 (11) 품귀 (12) 임용 (13) 종지 (14) 성능 (15) 실효 (16) 행운 (17) 성공 (18) 한기 (19) 상업 (20) 전망
- 2. (1) 단 단 (2) 글 올 고 (3) 읽을 득 (4) 살 활 (5) 말습 담 (6) 써 이 (7) 인간 세 (8) 구름 문 (9) 터 기 (10) 다들 쟁 (11) 떨어질 락 (12) 상줄 상 (13) 완전할 완 (14) 그림 화 (15) 팔 매 (16) 물건 건 (17) 성품 성 (18) 있을 재 (19) 정사 상 (20) 해 세
- 3. (1) 感動 (2) 運動 (3) 東西 (4) 生物 (5) 正直
- 4. (1) 雲 (2) 消 (3) 向 (4) 服 (5) 清
- 5. (1) 外 (2) 足 (3) 冬 (4) 利
- 6. (1) ④ 規 (2) ② 特 (3) ④ 訓
- 7. (1) ③ 比 (2) ② 電 (3) ③ 前
- 8. (1) ③ 壇 (2) ③ 孝 (3) ① 節
- 9. (1) 노인 (2) 의사 (3) 마음
- 10. (1) 國 (2) 禮 (3) 圖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한자나 훈음을 쓰시오.

	擔	然	
지킬 보	마평할 당		거들 수
拾	行		頭
	어두울 암	날 출	

